

<하기 글은 2016년 1월 18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2016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용인 지역주민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설렘으로 가득했던 2016년의 첫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으로 맞이한 2016년 병신(丙申)년!



지난 11월에 진행된 '제1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농동 주민센터 인근에 새로 개장한 서농동 게이트볼장에서 펼쳐졌던 게이트볼 대회는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대회를 기대하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기획하여 조금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게이트볼장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관련링크: 이웃과 하나되는 화합의 장, 제1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



다음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4분기 테마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희망택배'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용인시 전통시장에서 전량 구입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이 기부활동은 수혜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지역사회로 다가갈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다음으로 2016년에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질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DS부문의 사내 동호회와 지역이 함께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연계 활동을 통해 많은 임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많아지겠죠?

이어서 소음문제와 같은 지역의 주요 민원도 잊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업장 근처 무단주차 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조금 더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자는 의미로 각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가오는 3월,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찾아가는 소통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활발한 소통과 함께 서로의 행복을 위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를 기대해 봅니다!